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04호 1판 (음력 6월 18일)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군공항·어등산·민간공원·광주역…묵은 현안에 '발목'

광주시, 민선 7기 미래전략 안 보인다

8월 중 신속 처리하고 이시장 공약 맞춰 정책·사업 내놔야

현대자동차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다음달 중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 역시 조만간 결정될 예정으로, 광주의 주요 현안들이 8월을 기점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현안을 서둘러 정리한 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미래 광주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29일 "민선 7기 시정 최우선과제로 부상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설립 협상을 8월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협상 일정이 더 지연되면 시와 현대차 모두 '피로감'이 높아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광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8월 중순 협약 체결설'을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도 '광주형 일자리'의 확산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현대차와 시의 협상은 투자금액, 공장노동자 임금 수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 완성차 공장을 운영할 합작법인의 자기자본금은 2800억원으로, 2대 주주로 참여할 현대차는 19% 정도인 530억여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1대 주주인 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비를 투자한 뒤 이를 다시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보다 많은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10만대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해 직·간접 고용인원은 1만~1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임금은 2016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 이하인 연봉 4000만원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노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현대차가 협상을 성사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주제에 대한 합의는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라며 "다만 노조 반발과 세세한 부분에서의 이견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이 7월 말까지 공론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도시철도 2호선은 연말 전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현재 시의 건설방식인 저심도(지하를 낮게 파는 방식) 공법에 반대, 250명으로 시민숙의단을 구성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시는 대표성, 신속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문제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8월 7일 예정돼 있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무리 없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시장이 3대 현안 중 하나라고 언급한 내년 국비 확보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10년 넘게 표류해온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등도 8월 내에 가닥이 잡힌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민선 7기가 현안 해결에만 집중하면서 이 시장의 공약이나 미래전략은 눈앞에서 사라진 느낌"이라며 "현안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 물축제 인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28일, 장흥 탐진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38.5도 역대 최고 … 18일 연속 33도 넘는 폭염

오늘 5~40㎜ 내외 '찔끔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재난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역대 최악의 '최장 폭염지속 일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광주가 기상관측 이후 79년 만에 최고 기온인 38.5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역대 최장 폭염 지속**=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폭염(33도 이상)은 이날까지 18일 연속 관측됐다. 18일 동안 매일 33도 이상 날씨가 이어진 것이다. 역대 폭염 최장지속일수는 1994년의 19일이며 2012·2013년 17일, 1942년 16일 순이다.

특히 지난 27일 오후 4시 24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8년 8월 광주 측후소(광주지방기상청 전신) 창설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인 38.5도를 찍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 8일(중기예보)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낮 최고기온(29~32도)보다 높은 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염 피해 '눈덩이'**=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광주에서 63명(지역 내 발생 45명 지역 외 발생 18명)이, 전남에서 168명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 닭과 오리, 돼지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286 농가에서 47만90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수로는 20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바닷물 온도도 상승하면서 양식장에서 6만5000마리의 돌돔이 폐사하기도 했다.

◇**시·도 폭염피해 집중 관리 나서**=광주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7일부터 4개반 21명으로 긴급 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한편 기상청은 30일에는 제12호 태풍(종다리)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5~40㎜ 내외의 '찔끔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8·15 광복절 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8월 12일 오전 8시 출발

광주일보사는 오는 8월 12일 화순과 광주를 이어주는 너릿재 옛길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너릿재 옛길을 널리 알리고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 코스인 너릿재 옛길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될 만큼 곳곳에 편백나무·소나무 등 천연 수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명품 숲길입니다. 또한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가 된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옛 전남도청~화순군청)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혹서기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가족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8월 12일(일) 08:00 출발
■장소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종목 : 풀코스, 25km, 8.5km
■접수 : http://marathonworld.kr
■후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화순군체육회, 광주광역시 동구
■문의 : 061) 375-1288
■주최 : 광주일보사, 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마라톤세상

광주일보

"평화당 살릴 대표는 나야 나"

정동영·유성엽·최경환 지지 호소

전당대회 D-6

6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는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최경환(초선) 의원은 평화당을 살리기 위해선 자신이 최적의 후보임을 강조했다. 〈인터뷰 3면〉

정 의원은 "호남의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그 일을 유성엽만이 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의원은 "초선 대표로서 변화를 주도하며 정치 판을 흔들어 활로를 찾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평화당은 내달 1일부터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한다.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7시까지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K-보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실시한다. 이어 K-보팅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저녁 9시까지 ARS 투표가 진행된다. 같은 시각 역시 ARS 방식으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된다. 평화당은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90%, 10% 비중으로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당 대표로 선출한다. 2~5위는 최고위원이 된다. 전당대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삼, 이윤석, 허영 후보(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